

생활체육 운영 전국 '최고 수준'

무주, 농·어촌형 84개 시·군 가운데 전국 5위 운영능력·참여자 만족도 지도자 업무성과 높은 점수

무주군 생활체육의 지도력과 운영이 전국 농어촌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무주군과 무주군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와 2020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평가 결과 '농어촌형' 84개 시·군에서 전국 5위에 올랐다. 2019년에도 전국 3위를 달성하는 등 매년 전국 최고 수준 대열에 오르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매년 시·군·구체육회를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발전적 운영과 성과 창출을 위해 도시형·도·농복합형·농어촌형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무주군체육회는 사업 운영능력(50점), 참여자 만족도(20점), 지도자 업무성과(30점) 평가결과 89.05점을 받아 전국 229개 시·군·구 지자체 체육회 중 농어촌형에서 전남 화순군 경북 영양군과 영덕군, 인접 진안군과 함께 우수 시·군으로 평가됐다. 전국 평균은 76.14점으로 나타났다. 7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활동하고 있는 무주군체육회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홈 트레이닝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대한체육회와 전라북도 등 사업공모를 통해 체육활성화를 도모했다.



무주군 생활체육의 지도력과 운영이 전국 농어촌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사진은 무주군 피크골프협회장배 피크골프대회.

코로나 상황에 맞는 신규수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한 점 등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무주군체육회 송재호 회장은 "민선체육회 출범 이후 무주군이 2년 연속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너무도 기쁘다"라며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2021년이지만 내부적으로 담금질 하는 계기로 삼아 올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군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에 따라 일정액의 성과금을 지급 받게 된다. 한편, 2021년 무주군체육회는 범정부인화 됐으며 지도자 7명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돼 지도자 처우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오용환 이사장은 9일 이종갑 전 국기원 감사실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태권도 진흥 열·성 다할 것"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사무총장 취임 취임식 대신 태권도원 시설 점검 나서

태권도진흥재단 오용환 이사장은 9일 이종갑 전 국기원 감사실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간이다. 이종갑 사무총장은 국기원 기획조정실장과 경영지원본부장, 총무기획팀장 등 2008년부터 15년 동안 국기원에서 재직하며 태권도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날 취임 소감으로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라며 "국기 태권도와 태권도원 활성화에 일조하고 개혁과 협력 그리고 소통을 바탕으로 태권도 진흥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갑 사무총장은 취임식을 대신해 태권도진흥재단 직원들과의 상견례, 태권도원 시설 점검을 갖는 등 국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현안 파악에 나섰다. /무주=전문선기자

IOC "北,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 베이징올림픽 참가 '제동'

도쿄올림픽 일방 불참 징계… "올림픽현장 위반", 자격정지 중 재정 지원 전무… 배정금도 몰수 바흐 위원장, 개인 자격 올림픽 출전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 내릴 것" 가능성 열어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8일(현지시간) 올해 도쿄 하계올림픽에 무단으로 불참한 북한에 대해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AFP,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스위스 로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올림픽위원회(NOC)는 일방적으로 2020 도쿄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흐 위원장은 이날 IOC 집행위를 마친 뒤 개최한 회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 NOC가 유일하게 도쿄올림픽에 불참했다고 지적하면서 참가를 의무화 한 올림픽현장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흐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북한 NOC가 내년

말까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당초 북한 NOC에 배정됐던 국제사회 제재로 지급이 보류됐던 이전 올림픽 출전 지원금도 몰수한다고 전했다. 북한은 내년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도 일단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바흐 위원장은 북한 선수가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IOC는 북한의 자격정지 기한을 재검토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혀 조정 여지도 남겼다. 북한은 200여 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도쿄올림픽에 불참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공중보건 위기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불참을 선언했고, IOC의 백신 제공 등 제안도 모두 거절했다. 2020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팬데믹에 1년 연기돼 지난 7월 열렸다. IOC는 성명에서 "북한은 백신 제공 등 코로나19 안전 프로토콜에 대한 모든 제안을 거절한 뒤 올림픽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하계올림픽에 불참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처음이었다. 앞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엔 10명의 선수를 파견했다. /뉴시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아직은 언니가 우위'… 전지희, 신유빈 제압

춘계 회장기 실업탁구대회 기업부 여자단식 4강 안착

아직은 언니의 기량이 좀 더 탄탄했다. 전지희(29·포스코에너지·사진)가 신유빈(17·대한항공)을 꺾고 2021 춘계 회장기 실업탁구대회 기업부 여자단식 4강에 안착했다. 전지희는 9일 강원도 인제군 다목적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단식 8강전에서 신유빈을 세트스코어 3-1(11-3 11-6 2-11 15-13)로 제압했다. 이번 경기는 국내 최강자인 전지희와 2020 도쿄올림픽을 통해 한국 여자탁구의 미래로 떠오른 신유빈의 격돌로 큰 관심을 끌었다. 두 선수가 국내 실업 무대에서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대회였던 지난해 월드테이블테니스 컨테스타에서는 전지희가 웃었다. 경기 초반은 전지희가 신유빈을 압도했다. 전지희의 공격적인 플레이에 신유빈은 크게 흔들렸다. 실수를 쏟아내며 1세트를 11-3으로 내준 신유빈은 2세트에서도 6점을 안는데 그쳤다. 신유



빈은 3세트 들어 힘을 냈다. 전지희가 잠시 주춤한 사이 기세를 몰아 한 세트를 만회했다. 전지희와 신유빈은 4세트에서 4차례나 듀스 집전을 벌였다. 마지막에 웃은 이는 전지희였다. 전지희는 13-13에서 신유빈의 리시브 실수를 틈타 내리 2득점, 승부를 끝냈다. /뉴시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